치 사

이곳 논산 육군훈련소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갈 장병들이 모이는 곳 입니다. 호국의 교육도량이자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요람 이기도 합니다. 국가방위와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곳 논산육군훈련소에서 군포교의 중요한 거점이 될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의 출발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행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.

그동안 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온 군종교구장 자광스님과 불사추진위원장 김의정님 및 건축위원장 구자선님, 육군훈련소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평소 불교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내외 귀빈들과 이 행사를 더욱 뜻 깊게 하기 위하여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군포교의 요람인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은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.

오늘 이 불사는 불교 중흥의 초석을 다지고자하는 원력으로 발원했습니다. 우리 장병들은 그동안 비좁고 열악하며, 오래된 법당시설에서 추위와 더위에 힘들게 법회를 열어왔습니다. 이제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량이 조성될 것 입니다. 호국 연무사가 3,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첫 삽을 뜨는 이 자리를

2천만 불자와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, 신축법당의 건립불사가 장애없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히기원합니다.

오늘, 그 오랜 바람의 결실을 맺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.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그 걸음을 더욱 힘차게 할 것 입니다. 우리불자 사부대중의 정성이 모여 결실을 이루게 된다면, 이곳에 서는 매년 10만명 이상의 수계불자를 양성할 수 있게 되고, 그 청년불자들은 우리 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.

우리 불자들의 사명이자 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에 온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, 이곳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.

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불보살님께 기원 드립니다.

불기 2554년 5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